

2014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통합 기본계획 워크숍

충남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수정계획 워크숍

□ 목 적

- 충남의 정체성을 위한 논리적 요소 도출
- 디자인특화개념에 의한 조형적 형태창출 방향 모색
- 충남의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콘텐츠 도출

□ 개 요

- 일 시 : 2014. 7. 10(목). 14:00~17: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3명
 - 발표자 : 이철성 교수(건양대학교), 남택영 교수(대덕대학교), 류혜지 교수(청운대학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자 : 정재운 교수(공주대학교), 김동하 교수(청주대학교), 김상식 교수(목원대학교)
 - 충남도청 : 윤일 팀장(건축도시과)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이충훈 센터장, 방재성 전임책임연구원, 박혜은 전임연구원, 오병찬 전임연구원, 김철명 연구원

□ 사회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오병찬 전임연구원

□ 주제 및 발표자

- 제 1 주제 :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검토
 - 발표자 : 이철성 교수(건양대학교)
- 제 2 주제 : 디자인 특화전략
 - 발표자 : 남택영 교수(대덕대학교)
- 제 3 주제 : 선도 프로젝트
 - 발표자 : 류혜지 교수(청운대학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

- 제 1주제 : 정재운 교수(공주대학교)
- 제 2주제 : 김동하 교수(청주대학교)
- 제 3주제 : 김상식 교수(목원대학교)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5 14:10 14:20	5 5 10	• 개 회 • 참석자소개 • 인사말	사회자 사회자 센터장
14:20	14:35	15	• 제1주제 발표 이철성 교수 (건양대학교)	진행 : 센터장
14:35	14:50	15	• 제2주제 발표 남택영 교수 (대덕대학교)	“
14:50	15:20	30	• 제3주제 발표 류혜지 교수 (청운대학교) 김준연 교수 (나사렛대학교)	“
15:20	15:40	20	휴식	“
15:40	15:50	10	• 제1주제 토론	“
15:50	16:00	10	• 제2주제 토론	“
16:00	16:10	10	• 제3주제 토론	“
16:10	16:30	20	• 정리 및 폐회	“

주제 및 발표자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검토

- 건양대학교 이 철 성 교수 -

디자인 특화전략

- 대덕대학교 남 택 영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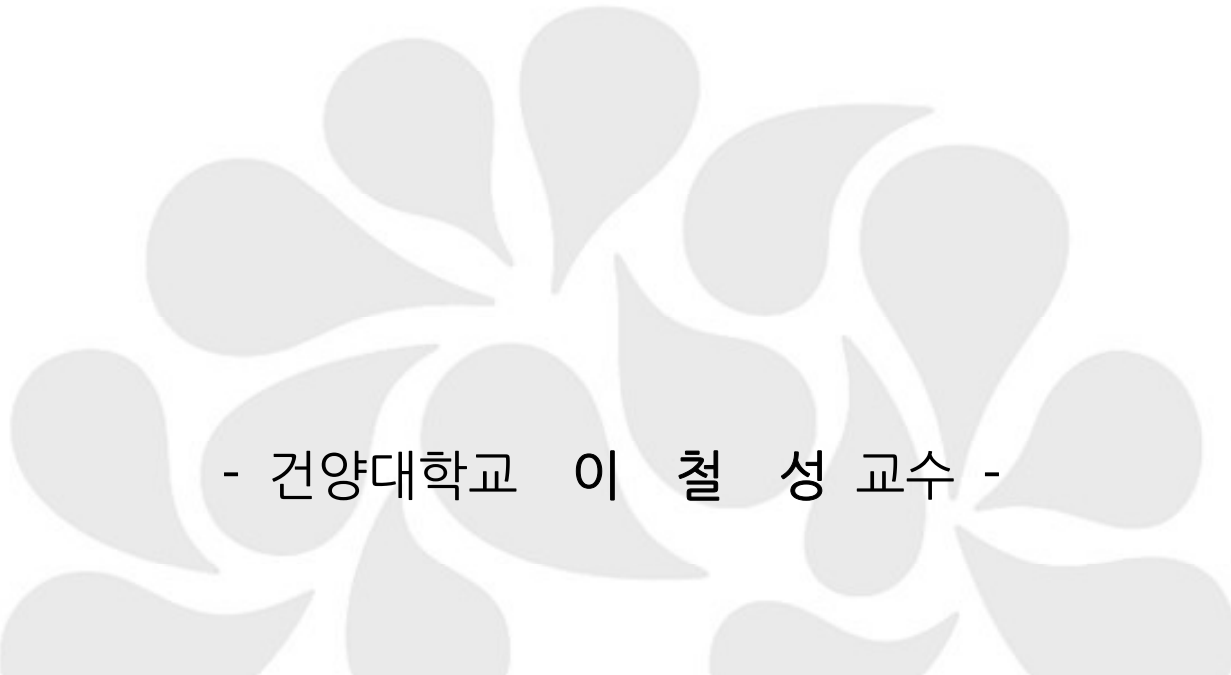
선도 프로젝트

- 청운대학교 류 혜 지 교수 -

- 나사렛대학교 김 준 연 교수 -

제1주제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검토



- 건양대학교 이 철 성 교수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이철성(건양대학교, 한국사)

※ 서설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은 백제문화와 선비정신으로 요약되어 왔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동질성 확인과 이를 통한 정신적 유대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정체성은 자아를 통해 공감하는 것과 타자를 통해 인식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현대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개항기와 일제시대에 겪은 사회변동과 굴절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은 우선 충청남도의 명칭 유래와 행정구역 변천을 우선 살폈다. 이는 근현대(개항~일제)의 변동 속에서 충청남도 지역의 굴절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충청도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해 보고, 이어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신을 종합해 보았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충청남도의 종합계획권역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종합계획권역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계획권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감안하여 시군별 공공디자인에 적용될 슬로건 및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제안이다.

1. '충청도'와 '충청남도'의 유래

1) 충청도의 명칭은 고려 시대 처음 등장

2) 충청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조선시대부터

○ 1395년(태조4) : 양주, 광주 관할인 군현은 경기도

공주, 홍주, 충주, 청주 관할의 군현은 충청도로 분리

○ 충청 우도(右道)와 좌도(左道)로 분리 인식

- 이종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남쪽의 반은 **차령** 남쪽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가깝고, 반은 **차령** 북편에 있어 경기도와 이웃이다.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 호서(제천 의림지 서쪽지방)

- 마한의 중심지(전 직산), 백제의 수도(공주, 부여), 통일신라 중경(충주)

- 고려(충남; 하남도, 충북; 양광도), 조선(기호예학; 회니시비, 호락논쟁)의 중심지

3) 근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충청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일체감 지속

○ 1896년(고종33) 전국 13도로 구획하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눔.

○ 1906년 행정구역 개편

- 전통적으로 큰 읍이었던 공주, 홍주, 천안의 규모가 축소된 반면, 회덕, 면천, 아산의 규모 확대. 대전 성장 예고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 전국 13도 12부, 317군으로 개편. 그 중 기존 충남 37개군을 14개군으로 통폐합.

현재(2014)	1914 행정구역	1896년 행정구역
공주시	공주군	공주군
홍성군	홍성군	홍주군, 결성군, 보령군 일부
보령시	보령군	보령군, 남포군
서천군	서천군	서천군, 한산군, 비인군
서산시	서산군	서산군, 태안군, 해미군
당진시	당진군	당진군, 면천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덕산군, 대흥군
아산시	아산군	아산군, 온양군, 신창군
천안시	천안군	천안군, 목천군, 직산군
논산시	논산군	은진군, 연산군, 노성군, 석성군 일부
부여군	부여군	부여군, 임천군, 홍산군, 석성군 일부
청양군	청양군	청양군, 정산군, 홍주군 일부, 부여군 일부
태안군		
금산군	금산군→1963년 충남 복귀	공주부 금산군과 진산군을 전라북도 편입
계룡시	*2003년 도농복합시 설치	
대전	대전군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일부
세종	연기군	연기군, 전의군, 공주군 일부

4) 근·현대 역사 문화적 정체성 변동 요인

○ 1905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 지역 경제권의 변화 : 대전권, 천안권, 대천권, 청양부여의 내륙권, 서산권으로 분산
공주, 강경, 부강 침체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 도청 이전(공주→대전, 1932년 10월)

○ 1920년 조치원~청주 충북선 개통. 이후 1928년 충주까지 개통

1931년 장항선 : 천안 출발 - 온양-아산-예산-홍성-웅천-장항
→백제의 멸망 단체 관광코스(부여), 온천 개발(온양 1918, 유성 1926)

→193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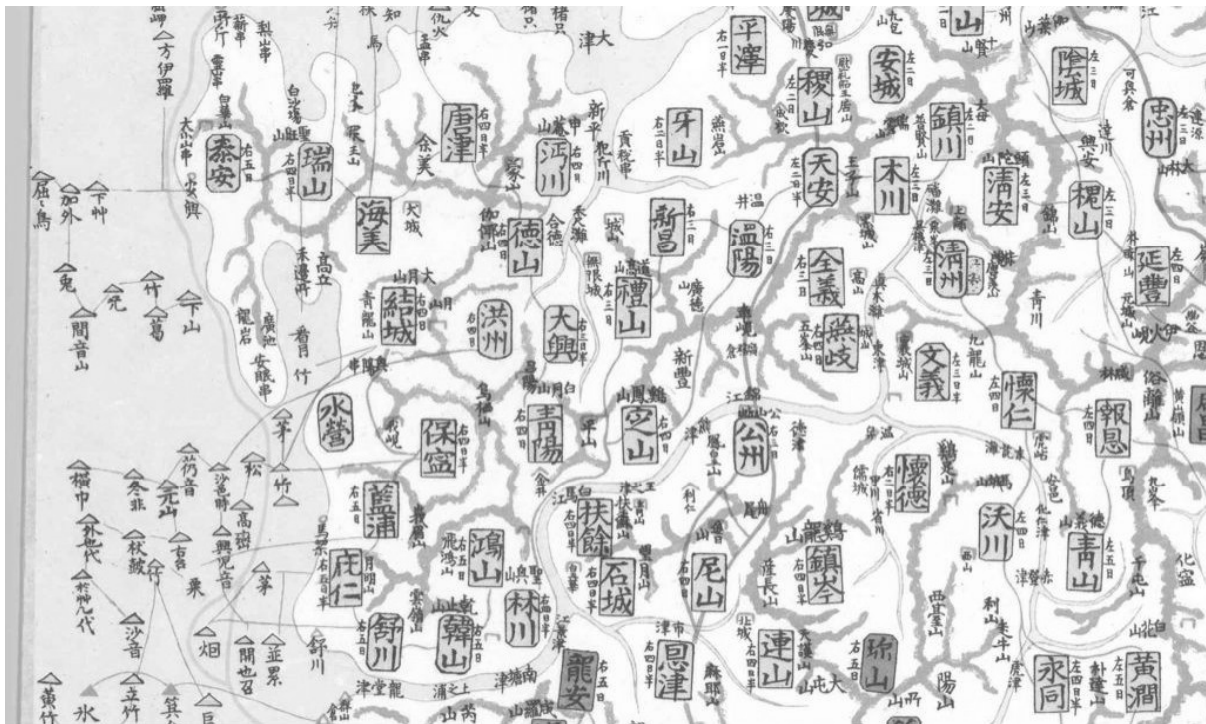
- 대전 : 호남선 분기점, 남선교통의 요충지
- 조치원 : 충북선의 분기점이자 백제의 구도(舊都) 공주가 시작되는 곳
- 천안 : 장항선 철도의 분기점. 온양, 예산(충남제지, 농업학교) 대전(어항) 장항, 군산 연결의 동맥
- 논산 : 조선제일의 석불 1914년 호남선, 1928년 강경-군산 운항하는 기선 개통, 강경이 호남의 수향(水鄕)이라 불림

5) 일제시대 충청남도·충남인에 대한 평가

- 충남 근대화 매우 완고 했다.

- 월남 이상재(서천) “고래로 호서 사람이란 것은 맨 주먹 쥐고 서울에서 머물면서도 겨울이면 달력 한 권 여름이면 부채 한 자루라도 시골집에 내려 보내야 쓸 줄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그런 버릇은 버려야겠다.”
- 민태원(서산, 언론인) “조선 양반의 폐단은 조선 오백년 이래 반향(班鄕)을 자랑하던 충남인에게 더더욱 심할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
- 소작을 붙이지 못하는 불안성
 - 일본인 농장주 이외에 공주 김갑순, 예산의 김성권, 서울의 박흥식 등이 충남의 대지주로 등장
 - 정미소업 및 청주, 된장, 간장 등 양조업 등 발달
-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배출의 못자리
 - 3.1운동(유관순), 1922년 민립대학기성회 조직(한용운이 중앙상무위원)으로 당진, 아산, 예산, 청양, 공주에 지방부 조직, 1927년 신간회 홍성, 공주, 대전, 예산, 서산, 논산 지회. 1926년 6.10만세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 공주고보, 영명학교, 홍성공업전수학교, 예산공립농업학교, 부여 공립 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2. 조선시대 충청우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도출



1) 공주목

공주목	
소속 군	임천군, 한산군
소속 현	정산, 부여, 석성, 은진, 이산, 연산, 진잠, 회덕, 연기, 전의
현재(충남)	공주,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세종), (대전),

- 인문 지리적 특성 : 금강 문화권(경제 번영) / 계룡산 문화권(사상적 자유)
 - 금강 문화권 : 공주 부여(백마강), 논산(강경강), 회덕(갑천 동쪽 회덕현, 서쪽 유성촌), 금산
 - 계룡산 문화권¹⁾ : 유성(계룡산 동북방), 신도안(계룡산 남쪽), 이산, 석성, 연산, 은진(계룡산 서남방; 하한은 강경나루)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안정성(예학)과 역동성(금강), 고도(古都)의 중심성(백제문화권), 내륙을 있는 경제적 젖줄
 - 논산²⁾, 계룡, 금산 : 예학의 정신³⁾과 경제 번영을 위한 역동성
 - 공주, 부여 : 백제의 고도라는 자부심⁴⁾
 - 계룡 : 계룡산 문화권 속 한국 국방의 수도

2) 홍주목

홍주목	
소속 군	서천군, 면천군, 서산군, 태안군, 대흥군
소속 현	온양, 아산, 신창, 홍산, 덕산, 청양, 남포, 비인, 결성, 보령, 예산, 해미, 당진, (평택)
현재(충남)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청양군

- 인문 지리적 특성 : 내포문화권(오서산⁵⁾, 가야산⁶⁾), 서해문화권(성주산), 아산 공진창⁷⁾, 청양 칠갑산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해양성(경제적 풍요), 포용성(문화의 수입), 진취성(성리학, 천주교 도입, 실학의 발생과 경기지역과의 교류, 학자, 지사, 지식인 배출)
 - 내포문화권(태안, 서산, 홍성, 예산, 당진, 아산)⁸⁾
 - ◇ 예산 : 유공포의 동쪽과 서쪽의 여러 고을에는 모두 장삿배가 통하나 그 중에서도 예산이 배들이 떠나고 머무는 곳이 되었다.
 - ◇ 온양 : 아산, 온양 등 여러 마을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과 문학을 공부한 선비가 많이 나왔다.
 - ◇ 아산 : 본래부터 생선과 소금이 넉넉했는데, (공진)창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백성이 많이 모였고, 장사꾼들도 모여서 부유한 집이 많다.⁹⁾

- 1) 「이산과 연산은 산이 가까우나 땅이 기름지고, 은진 석성은 들에 위치했으나 땅이 메마르며 수재와 한재를 자주 당한다. 이 네 고을은 경춘촌과 통하여 한 들로 되었으며, 바다 조수가 강경을 지나 출입하므로, 들 가운데 여러 곳의 냇물과 골에 배가 통행하는 이익이 있다.」 「땅이 기름지고 산이 웅장하고 백성이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하다.」
- 2) 은진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쪽 들 가운데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다(이중환, 택리지)
- 3)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기호예학 중심지.
- 4) 공주는 1932년 도청 이전 전까지 조선시대 감영을 이어 도청이 있었다는 중심지 인식이 있음.
- 5) 오서산 : 홍주, 결성, 보령의 세 고을 경계에 우뚝 서 있다.
- 6) 가야산 앞뒤의 열 고을 -보령, 결성, 해미(가야산 서쪽), 태안, 서산, 면천, 당진(가야산 북쪽), 홍주, 덕산(가야산 동쪽), 예산
- 7) 유공포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서 소사하와 합치며 두 가닥 물이 만나는 사이가 아산. 영인산의 북쪽 바닷가에 창을 설치하고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여러 고을의 조세를 거두어 해마다 배에 실어 서울에 나르는 까닭으로 이 호수를 공세호라 부른다.
- 8)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은 학질과 염병이 많으며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과 원습(原隰)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란다.」 「내포에는 아산 공세호와 덕산 유공포가 수량이 많고 근원이 길다. 홍주 광천과 서산 성연은 비록 시냇물 항구이나 조수가 통하는 까닭에 장삿배가 머물러 화물을 싣고 부리는 곳이다.」(이중환, 택리지)

- 근대 인천, 서울로 유학 지식인 배출의 기반
- 서해문화권(비인, 남포, 서천, 한산, 임천, 홍산, 정산)
 - ◇ 비인, 남포 (성주산 서편) : 땅이 아주 기름지고 서쪽으로 큰 바다에 임해서 생선, 소금, 메벼를 거래하는 이익이 있다.
 - ◇ 서천, 한산, 임천(성주산 남쪽) : 모시로 얻는 이익이 전국의 최고
 - ◇ 홍산, 정산
- 일곱 고을은 풍속이 대략 같고 또 여러 대를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3) 청주목

청주목	
소속 군	천안, 옥천
소속 현	직산, 목천, 문의, 회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현재(충남)	천안시

- 인문 지리적 특성 :
 - ◇ 천안 : 온양 · 목천 10리, 아산 15리로 근접 문화권. 교통의 중심지¹⁰⁾
 - 목천 마일령의 서쪽에 내포, 동쪽과 차령 이북에 천안, 직산, 평택, 아산, 신창, 온양, 예산 등 일곱 고을이 있어 풍속이 대략 같다.천안과 직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이다. 직산에서 평야지대를 이십 리쯤 가면 평야가 끝나면서 소사하(素沙河)이고, 소사하의 북쪽은 곧 경기도 남쪽의 경계이다.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집중성(물길과 물길의 교차)와 환류성(천안의 온양, 아산을 잇는 경제적 연대성과 충청 좌도 내륙과의 연계)

4) 충주목

충주목	
소속 군	청풍, 단양, 괴산
소속 현	연풍, 음성, 영춘, 제천
현재(충남)	

3.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신

1) 개방성과 창의성을 표출한 백제 정신[백제문화권]

- 백제는 웅진시대와 사비시대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 교류를 통해 개방성과 국제성을 띠었다.
 - 공주 무령왕릉,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천안 용원리 환두대도, 공주 송산리 고분 및 부여 능산리 고분 벽화
- 백제는 서해를 통한 해상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되 온화하고 세련된 창의적

9) 창이 있는 마을이 그리할 뿐만 아니라 영인산 맥이 두 갈래 물 사이에 그쳐서 기세와 맥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산의 전후와 좌우가 모두 이름난 마을이며 사대부의 집이 많다.

10) 전의, 청주로 이어지는 큰길, 공주 인제원과 이어지는 큰길이 있다. 『여지도서』 형승 “삼국의 중심으로 다섯 용이 구슬을 다투는 형세”

문화를 창조하였다.

- 서산 마애삼존불, 무령왕릉 출토 금관장식, 논산 화형은제관식
- 백제는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국의 위상을 차지하였다.
- 법륜사, 광륜사 목조미륵반가사유상, 오경박사(유교), 노리사치계(불교), 건축기술자(노반박사, 기와박사, 화가 등), 역박사, 의박사 파견

2) 포용성과 진취성을 아우르는 실학 정신 [내포·서해·공진창 문화권]

- 충남의 불교에서는 미륵신앙이 두드러지고, 현존하는 미륵불의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현실의 고통과 애환을 미래 부처로 풀어내려는 포용성의 문화를 표출한다.
- 개태사(논산), 관촉사(논산), 대조사(부여)의 미륵불, 홍성, 천안, 논산의 마애불, 당진, 서산, 예산 등지의 매항비,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마곡사 5층 탑
- 바닷길을 통해 외부와의 문물수입이 유리하였고, 내륙수로와 연안해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였다. 운하를 건설하여 자연을 극복하려는 진취성도 있었다. 또한 해로를 통한 이주와 귀화도 있었다.
- 서해 포구발달(고려-서산 영풍창) 태안반도 운하 굴착 사업, 안흥정(태안, 서산), 13세기 남송으로부터 귀화한 정신보, 정인경 부자(서산)
- 충청도는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하는 토양이 되었다.
- 백이정(보령), 고려말 성리학을 국내에 보급. 이곡과 이색 부자 등도 서천 보령 일대에 기반을 둔 성리학자. 문헌서원(이색 제향, 서천)
- 충청도는 성리학이 주자학 일변도로 치달을 때 양명학과, 실학으로 사상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심지였다.
- 성호 이익의 집안이 충남 덕산에 옮겨 살면서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성호학통의 많은 실학자 형성, 이병휴 : 이익의 조카이자 어려서부터 이익의 곁에서 학문을 가장 깊게 전수 받은 인물. 그는 안정복과 가까이 교류하면서 동사강목의 편찬에도 도움을 줌. 또 그 문하에서 권철신, 권일신 등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양명학과 천주교 등 신사조에 조예가 깊었다. 이용휴 : 충청 덕산 태생. 경기도 안산의 성포리에 사는 이익과 뱃길로 왕래하며 연구에 몰두. 아들인 이가환과 외손 이승훈, 이학규 등에게 전수. 이가환 : 1801년 신유사옥으로 죽음. 홍대용 : 충청도 천안 태생
- 고증학의 선두인 추사 김정희(예산)는 북학파의 거장이자 박제가의 문하에서 수학

3) 안정성과 실천성을 추구한 예학 정신[계룡산·금강 문화권]

- 왜란과 호란이후 극심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조선 예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호학파에 포함되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충청도의 학문적 특성은 예학으로서 특성화되었다.
- 김장생, 김집(논산), 송시열, 송준길(회덕), 이유태(공주), 윤선거, 윤순거, 윤원거, 윤증(논산), 유계(금산, 논산) 등 당대의 석학들이 활동한 주 무대가 충남.
- 또한 영남유학에 비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 이이의 기호학파(김장생- 김집-송시열-송준길), 우계학파(성혼-윤황-윤선거-윤증), 도산학풍(남인계열의 권득기-권시-권이진), 백호 윤희
- 유교의 도덕 교육인 충의정신이 위기에 바진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비와

의병을 배출하였다.-고경명, 조현의 금산전투.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자 왕을 따른 충청도 사림과 의병. 이밖에도 충남의 충절정신은 황산벌의 계백, 사육신 성삼문, 임진왜란의 이순신 등도 빼 수 없다.

- 금강을 따라 진강, 강경강, 백마강으로 연계되는 물줄기는 내륙수로를 통한 경제 동맥이었으며, 그 줄기를 따라 백제문화와 조선 성리학, 조선 예학이 성장하였고, 충절의 인물이 명멸하였다.

- 서천, 논산, 부여,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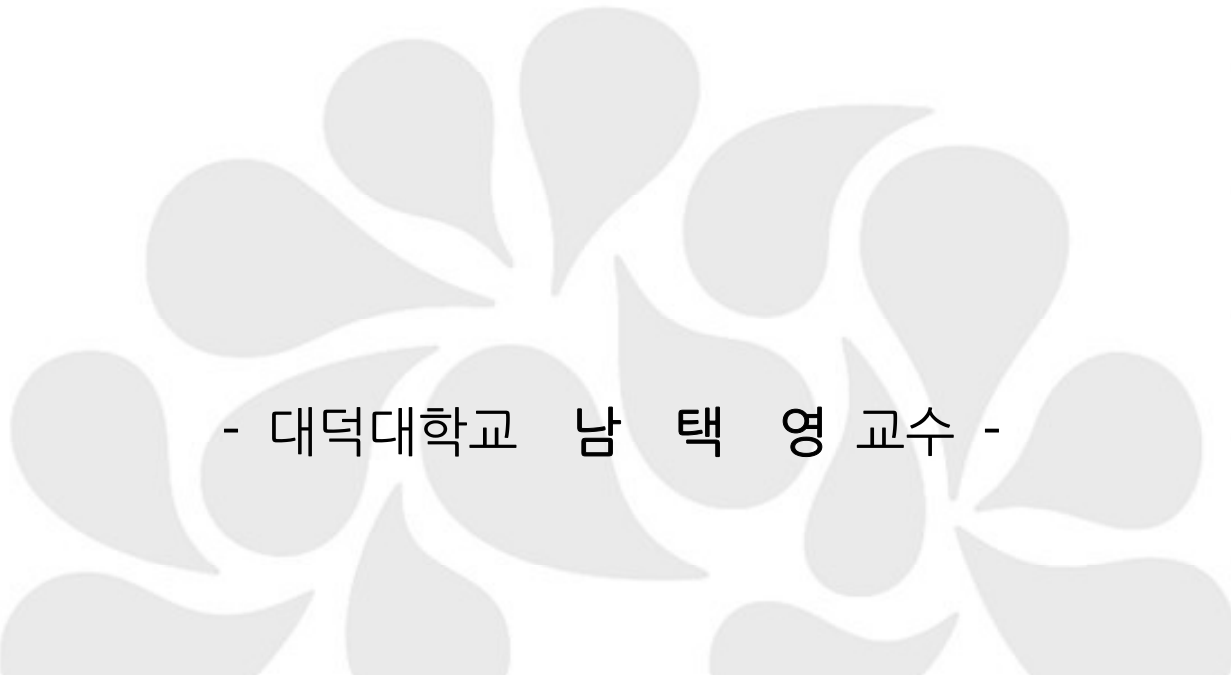
4. 충청남도 종합계획권역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 비교

종합계획권역	세부지역	역사문화권역	비고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공진창 문화권	천안 아산
서해안권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내포문화권	서산, 태안, 보령, [홍성][예산][당진]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칠갑산문화권	청양
백제권	공주 부여 [논산]	백제문화권	공주, 부여
금강권	금산, 계룡	금강 계룡산 문화권	[서천], [논산], 계룡, 금산

memo

제2주제

디자인 특화전략



- 대덕대학교 남택영 교수 -

2주제

디자인 특화 전략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형태적 개념정리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디자인 기본형태 재정립

남택영

소속 / 대덕대학교

2014.07.10.

공공디자인 통합 기본계획 워크숍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목차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04
02	형태적 개념정리 : 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11
03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디자인 기본형태 재정립	17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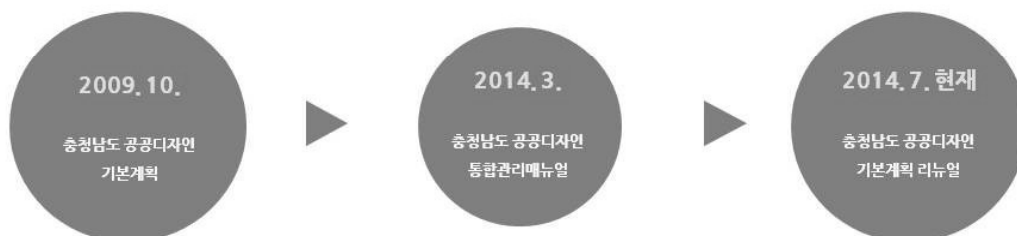
01

충남공공디자인센터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1

1.OVER VIEW



지금까지 쌓아온 헤리티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현재 상황 속에서 충남의 뿌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며 동시대적인 흐름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1

1.OVER VIEW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리뉴얼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2009년 수립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콘셉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콘셉트는 '플렉서블(Flexible)' 혹은 '다양성(조화, 개방, 포용, 선진)'이라는 문구로 요약된다. 이는 개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충청남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추구하는 창조적 정신을 표현한 문구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이미지 개선의 성패는 어떻게 활용성을 높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리뉴얼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원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2009년 수립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하되, 현재의 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포지셔닝한다.

5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1

1.OVER VIEW



6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2

출처: 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 디자인요소

디자인 구상요소 도출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구상은 무엇을 대상으로하며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자인 구상 방향

- 디자인적 요소는 인문적, 물리적 환경정비요소를 도출하여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반영한다.
- 인문적 환경정비 요소로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맥락을 반영

디자인요소 (인문적 · 자연적)	• 인문적, 자연적 디자인 요소(형태, 색상 등)
	• 과거 : 역사, 전설, 설화 등 인문·도시적 요소
	• 현재 : 도시기로의 맥락 및 경관요소, 잠재력
	• 미래 : 도시의 미래 이미지

7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3

출처: 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3. 부문별 디자인요소 키워드

디자인 구상요소 도출

- 역사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 자연적인 요소, 미래적 요소를 검토한 결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너그럽고, 조화롭음과 자연적 곡선미를 지닌 "다양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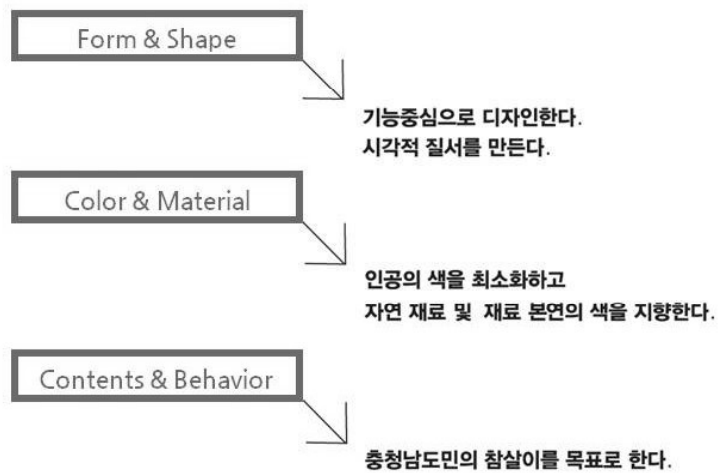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요소				키워드	총 합
역사 문화적 요소	백제문화	내포문화	금강문화	전통미 역사적 정체성	다양성 (포용·조화 융합·개방)	
정신적 요소	선비정신	청명정신	조화정신	청명 중용 너그러움		
자연적 요소	충남의 산·들·강	충남의 항구 및 포구	충남의 상징 화·목·조	자연의 곡선 수평선		
미래적 요소	서해안 선도도시	창조도시	살고싶은 도시	신·구의 조화·세련		

8

01 충남디자인 특화 기본방향

1-4

4. 충남공공디자인 3대 기본 추진전략



10

형태적 개념정리 : 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02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1

출처: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 기본방향

디자인 모티브 (Design Styling Motive)

조형개념에서 추출한 충남의 유·무형자원과 자연, 미래요소 내용과 스타일링 컨셉의 형태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다양성" 이 함축된 충남의 기본디자인 형태를 도출한다.

조형 개념

품격미

조형미

기능미

우아미

자연곡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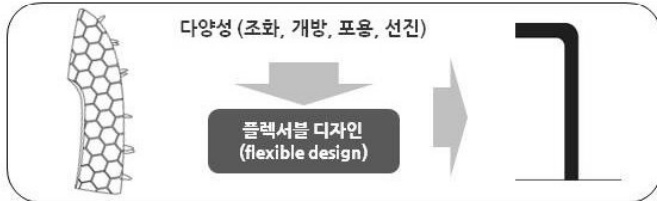
포용성



Styling Concept • 간결하고 심플한 이미지/ 절제된 이미지/ 강한 조형적 이미지



다양성 (조화, 개방, 포용, 선진)



11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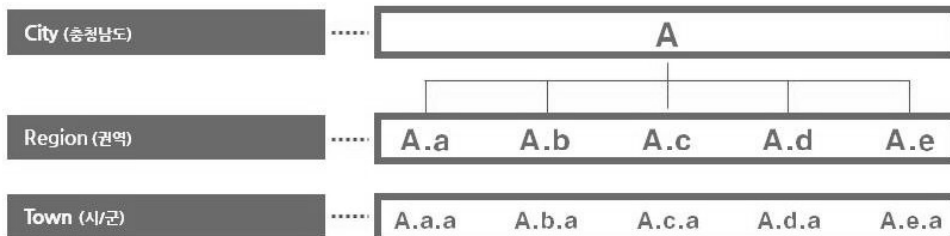
출처:이충훈,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브랜드 구축방안 연구, 2013

2. 디자인 조형문법의 도출

통합아이덴티티(Integrated Identity)는 모가되는 대상 "A"를 중심으로 계층적 구조에 입각해 여러 브랜드 이미지를 가변적인 형태, 컬러, 패턴 등을 사용해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대상의 정체성을 증강화하여 수용자들과 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즉, 통합형 아이덴티티는 일원적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가변적 표현방법을 추가시킨 형태이다.



통합형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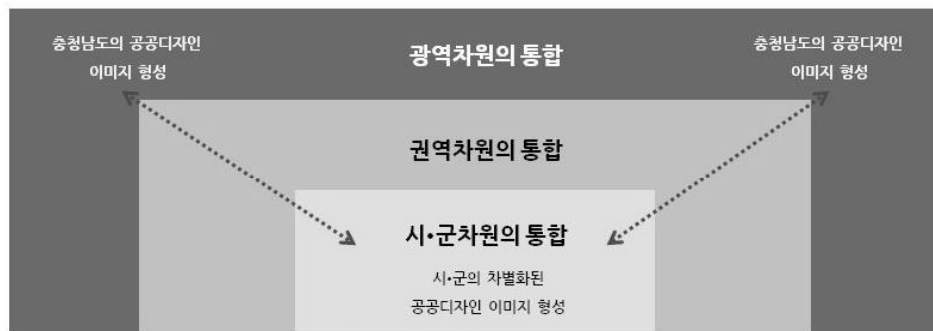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2

2. 디자인 조형문법의 도출

차별성의 통합화 전략을 통한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공공디자인이미지 형성은 광역차원, 권역차원, 시·군차원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광역차원에서 통합이 효과적인 요소에 대해 15개 시·군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한다.



1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 이미지 형성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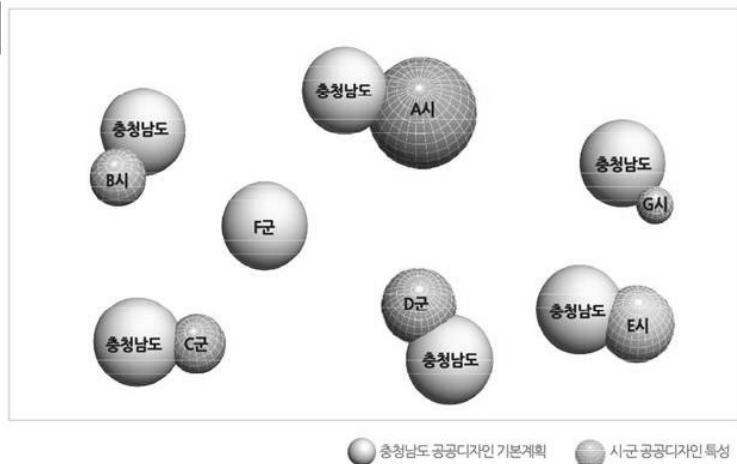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2

2. 디자인 조형문법의 도출

권역 또는 광역차원의 디자인 통합요소 개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시·군별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차원의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개념 중에서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중에서 기본원칙, 기본방향은 공통적으로 공유한 상태에서 각 시·군별로 차별화된 요소를 부과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구성한다.



14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2

2. 디자인 조형문법의 도출

시·군별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구성방안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시·군별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차원의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개념 중에서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중에서 기본원칙, 기본방향은 공통적으로 공유한 상태에서 각 시·군별로 차별화된 요소를 부과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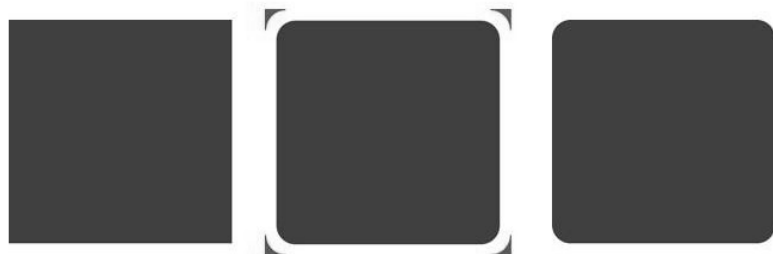
15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3

3. 디자인 조형문법의 적용

형태원칙



“동글고 모나지 않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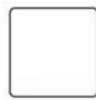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3

3. 디자인 조형문법의 적용

형태원칙(입면,단면)

단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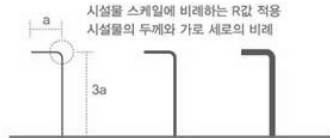


• 기본단면 (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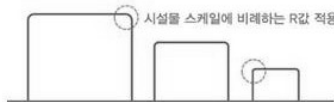
• 시설물 요소의 스케일에 따른 단면

선으로 이루어진 시설물



시설물 스케일에 비례하는 R값 적용
시설물의 두께와 가로 세로의 비례

면이 채워지지 않는 시설물



시설물 스케일에 비례하는 R값 적용

면이 채워지는 시설물



17

형태적 개념정리:기본방향, 충남의 조형적 특성

2-3

3. 디자인 조형문법의 적용

형태원칙(입면,단면)

입면 통합



단면 통합



18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03

충남공공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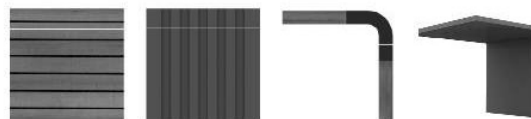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3-1

1. 시설물 기본디자인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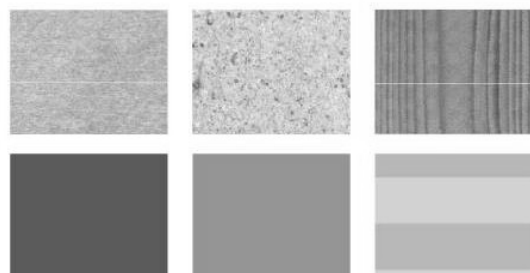
Form & Shape

불필요한 형태요소를 배제하고 모듈화 디자인 적용



Color & Material

화려한 무늬, 색채의 미감을 지양하고
무채색 단순한 패턴요소를 가진 소재
따뜻한 느낌의 목재 소재 저광택 소재선택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투명소재의 선택
주요정보를 전달하는 조형요소 (픽토그램 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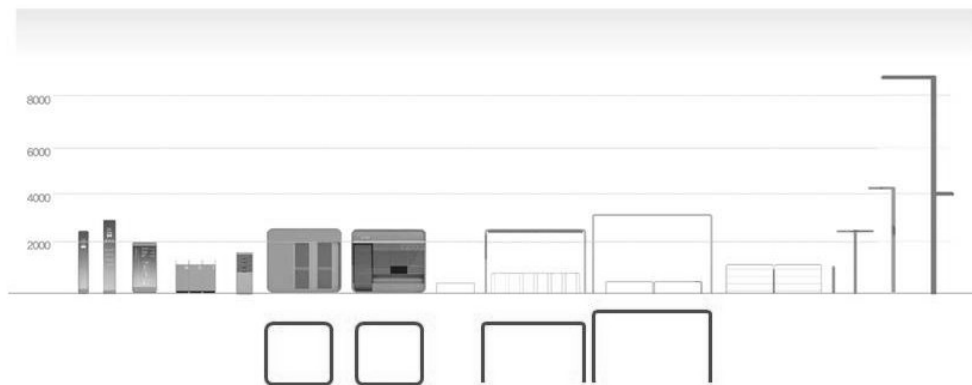
20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3-2

2. 시설물 기본디자인의 적용 방안(예)

Form & Shape



21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3-2

2. 시설물 기본디자인의 적용 방안(예)

Color & Material

재료의 다양화로 Design Identity 구축

독일 하노버(전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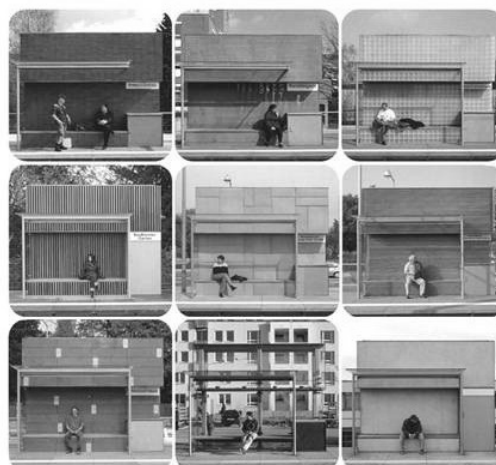
사각형 모듈의 효율성을 이용

기본구조는 같지만 다양한 재료를 덮을 수 있고 저마다 개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Design Identity를 구축 가능한 접근방식이다.

권역별 - 디자인형태의 변형

지자체별 - 색채요소의 변형



22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3-2

2. 시설물 기본디자인의 적용 방안(예)

Region & Zone

	기본형(?)	일반형(?)	자연형(?)	지역특화형(?)	
					
					
	통합디자인을 통한 사용성 및 유지 관리의 우수하고 다양한 충남경관에 유기적으로 대치	자연친화적 색상 및 재질의 도입을 통한 자연을 배려하고 순응하여 조화로운 경관 형성	형단성을 강조한 이미지 및 기능을 통한 장소성 강화 및 상징적 경관 형성		
형태	일반적 형태로 간결함을 추구	형태	기본형 형태의 통합	형태	장소성을 강조한 조형적 형태를 원칙으로 함
색채	통합 색상의 적용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 정립	색채	자연 친화적 색상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색채	상징적 색채 및 소재의 자체색을 원칙으로 함
재료	유지 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	재료	자연재료의 사용을 적극적 유도	재료	차별화된 재료의 적용으로 특화된 이미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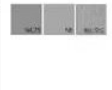
개발 유형	새부 유형	형태		색채		재질	
		통합	차별	통합	차별	통합	차별
일반형(?)	기본형(?)	●		●		●	
	자연형(?)	●			●		●
	지역특화형(?)		●		●		●

23

광역적인 충남의 시설물 기본디자인

3-2

2. 시설물 기본디자인의 적용 방안(예)

Region & Zone	기본형		자연형		특화형	
	기본형	자연형	기본형	자연형	기본형	자연형
						
	충청남도 표준형 공공시설물의 기본형		자연형의 형태는 기본형과 동일하여 색채 및 재료의 차별화		특화형은 형태, 색채, 재료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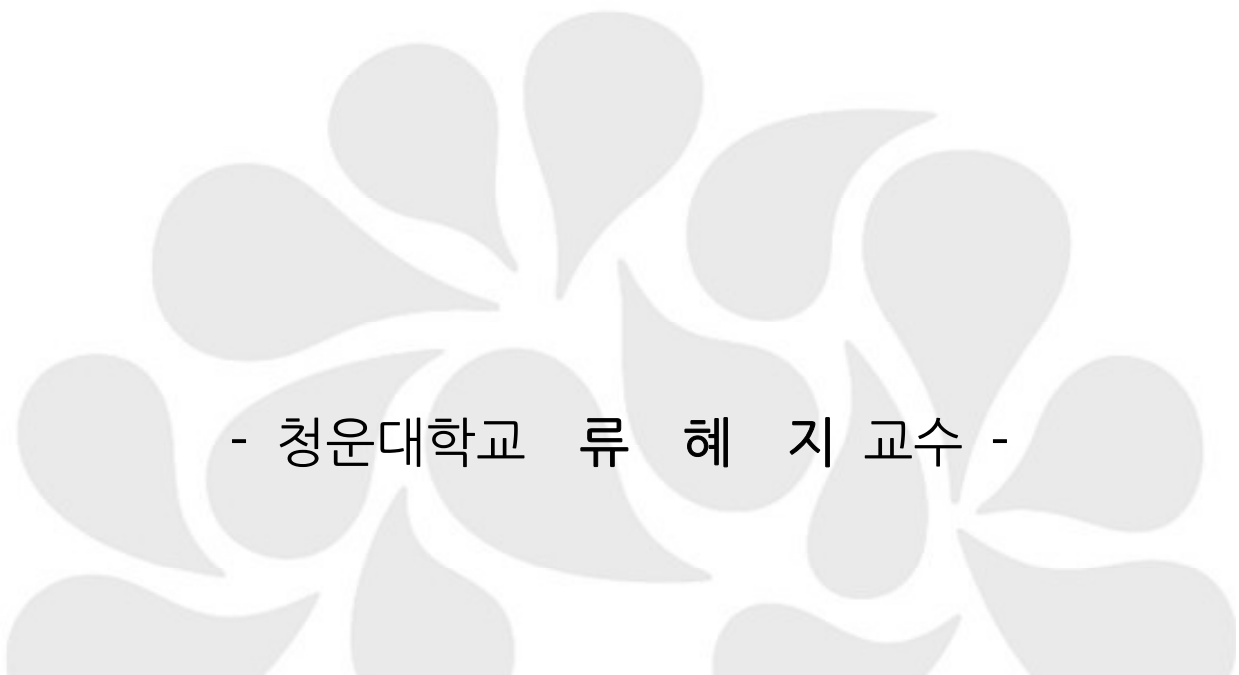
24

감사합니다.

memo

제3주제

선도 프로젝트 (1)



- 청운대학교 류 혜 지 교수 -

선도 프로젝트 1

류혜지(청운대학교 교수)

1. 상생단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개념

- 생산, 업무, 주거, 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신개념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개선

● 목적

-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 시의 고용인력 유출 방지
- 근로자·기업·주민이 함께 상생

● 내용

- 산업(농공)단지 내에 주거와 생활편의 시설을 함께 갖춘 공동주택 신축
- 주거시설과 체력단련실, 북카페, 매점 등 편의시설과 소공원을 갖춘 정주환경 조성
- 산책로, 문학테마길, 야생화초원, 숲속쉼터를 갖춘 근린공원 조성
- 근로자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체육관, 문화시설, 어린이도서관, 체육시설을 갖춘 문화·복지·체육시설센터 건립
- 맞벌이 부부 근로자들의 보육 걱정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영유아 보육시설
- 생활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도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
- 인구 유입
-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 목적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위험 시설물 설계에 적용하여 자살을 예방하도록 함

● 내용

- 다리, 육교, 건물옥상 등 자살 빈발 공간을 찾아 자살예방 설계기법을 적용
- 다리에 철제 벽을 설치하고, 펜스를 다리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디자인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신자 수를 줄임(미국 사례)
- 서울 마포대교, 한강대교 난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을 게시한 것 같이, 감성에 다가가는 사랑의 글이나 형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음
- 부산 태종대는 자살바위로 유명했지만, 자살 지점에 '모자상'을 설치한 후 자살의 빈도는 현저히 줄었음
- 빛과 색의 디자인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줌. 도쿄시는 투신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푸른색 LED조명등을 설치해 큰 효과를 봄.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는 이 푸른색 조명등으로 인해 도쿄 지하철은 역내 조명디자인 개념을 전면 바꾸게 됨.
- 우리나라에도 투신방지를 위한 스크린 도어가 보편화돼 있지만 조명디자인과 색채디자인으로도 확대해야 함
- 한국형 우울증 예방디자인 개발
- 주거 및 공공장소의 자살 다발 공간에 적용
- 구체적인 디자인 지침 국민들이 공유

● 기대효과

- 자살률 감소
- 국민의 우울한 현실에 대한 위로



<‘마포대교 생명의 길’-자살 방지를 위하여 다리의 난간 손잡이 부분에 힘이 되는 말 나열>

3. 범죄를 막는 공공디자인(셉테드, CPTED)

● 목적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
-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것

● 내용

- 건축물 설계 시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고안하고 건축물을 완성시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사전 차단

-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을 선 적용시키는 이론
- 후미졌던 골목길을 담벼락 벽화로 화사하게 바꿈
- 어둡고 무서워 다니기 힘들었던 골목길을 공공디자인 개선함
- 가로등 푸른색 LED조명등을 설치 개선
-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및 관리

● 기대효과

- 범행기회 차단
-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 거리 형성



<서울시 소금길 사례>

4. 농촌환경디자인개선사업

- 목적

- 개발이 낙후된 농촌 마을의 생활수준 및 주거 환경을 새롭게 개선
-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 내용

- 지역의 장소성 연구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개선
-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마을길 명소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의 독특한 문화 공간 조성
- 고령화, 공동화, 노후화된 농촌마을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세련되고 풍광이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

- 기대효과

-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
-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정감 있는 마을 조성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5. 통합복지힐링센터 공공디자인

- 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복지, 힐링 센터 통합
- 통합화된 복지센터 제공으로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

- 내용

- 현재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층에 따라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음
- 이를 통합하여 각 지역마다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와 힐링센터를 제공함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음
-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명상과 운동, 문화 활동도 한 곳에서 진행된다면 비용도 절약되고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임

- 기대효과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비용을 절약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단절된 세대간의 융합도 가능
- 기존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memo

제3주제

선도 프로젝트 (2)

- 나사렛대학교 김 준 연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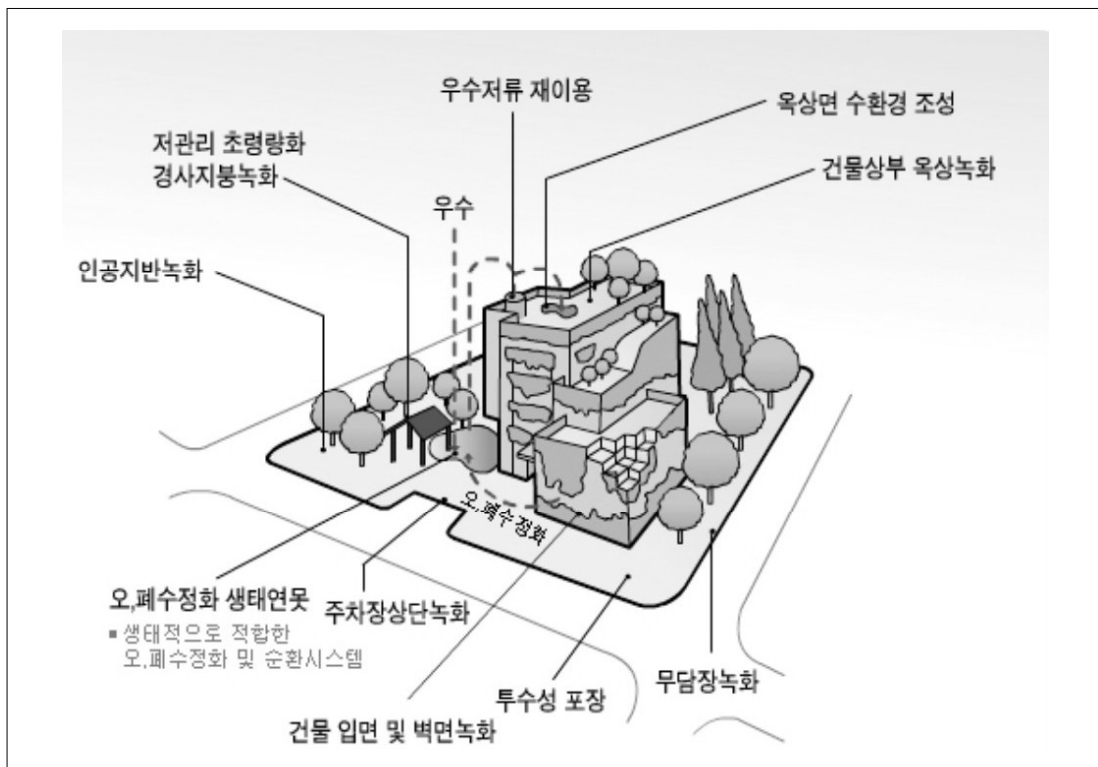
선도 프로젝트 2

김준연(나사렛대학교 교수)

1. 그린인프라구축을 통한 공공디자인

● 그린인프라(green infra)의 개념

-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이하 그린인프라)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후반에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린인프라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Mark A. Benedict 와 Edward T. McMahon이 2003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Green Infrastructure: Smart Conservation for the 21st Century 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서 그린인프라를 “자연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호 연결된 녹색공간¹¹⁾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 최근의 그린인프라 개념은 생태도시, 그린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도시의 환경을 위한 복합적 인프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그린인프라 적용범위

11) 여기서의 녹색공간은 자연지역 및 자연적 구조물, 공공 및 사적 보전용지,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 보존지역, 오픈스페이스 등을 말한다.

● 목적

- 그린인프라구축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린인프라는 쾌적하고, 고효율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시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주거 및 문화생활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열섬현상 및 오염부하 저감, 도시의 건강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그린인프라구축은 커뮤니티와 근린차원에서 수목, 식물 등의 자연식생을 사용하여 불투수 면적을 줄임으로써 건기에 좋은 거리만들기, 녹지보존과 같은 계획과 레인가든,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벽면녹화, 침투플랜터, 빗물저장 등 다양한 친환경 설계전략을 포함한다.
- 그린인프라를 통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시설의 설치 대신 적은 비용을 투입함으로 지자체 비용 절감할 수 있다.
- 레인가든, 생태습지 등 고비용의 수질정화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생물체를 매개로 하여 수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 열섬현상 완화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 환경의 질 향상과 인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 내용

- 도시 내 도로 및 보도와 관련한 공공공공 및 공공시설에 가로녹지를 도입하여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 주요 건축물 및 가로변 구조물에 녹화한다.
- 유휴지 및 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도시홍수 예방, 에너지 비용절감, 건축물내구성 향상
- 사회적 효과: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시민의 환경교육의 장 제공
- 환경적 효과: 녹화식물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흡수, 도시생태계의 복원, 대기 미기후 조절효과(습도), 소음감소

● 유형

1) 옥상녹화 : 천안시 사례

- 지원대상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 사업대상 건축물에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총액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013년 시범 실시한 순천향대학천안병원 옥상녹화('나눔의 숲')는 환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2> 천안시 2013년 옥상녹화지원 사업 사례 - 천안 순천향병원

2) 가로녹지(그린웨이)

- 가로녹지란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인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에 선형의 띠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광의적 개념으로 산책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동통로부터 야생동식물의 생태통로까지를 포함한 도시전체의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선형 오픈스페이스를 의미한다.
- 2000년에 접어들면서 가로수 하부에 선형의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녹지확보에 있어서 토지보상 등의 의무가 없이 적은 비용으로 경관개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감소, 도시내 미기후 조절 등 빈약한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가로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형의 녹지를 연결녹지라는 이름으로 새로 도입하였으나 조성 시 최소 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기성시가지 생활권내의 설치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보도의 폭이 3.0m 이상에서 설치하고 가로띠녹지 최소폭은 1.0m 이상 확보한다.
- 주변 토지이용, 보행밀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 보도폭을 제외한 나머지는 띠녹지 조성

※ 유효 보도폭은 최소 2m 이상 확보



<그림 3> 가로녹지 유형

- 서울 광진구 사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광나루길을 따라 실개천이 흐르고 수풀이 우거진 광나루길 그린웨이가 조성되어있다.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와 접하고 있는 보행벨트를 따라 친환경, 녹색 테마거리로 조성된 이곳은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동안 인도변을 따라 흐르는 실개천의 물소리와 함께 작은 폭포, 벽천 등 색다른 볼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곳으로서 밤이 되면 설치된 경관조명에서 비춰지는 불빛으로 인해 특별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웰빙 보행공간으로서 걷는 내내 쉼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림 4> 그린웨이 광진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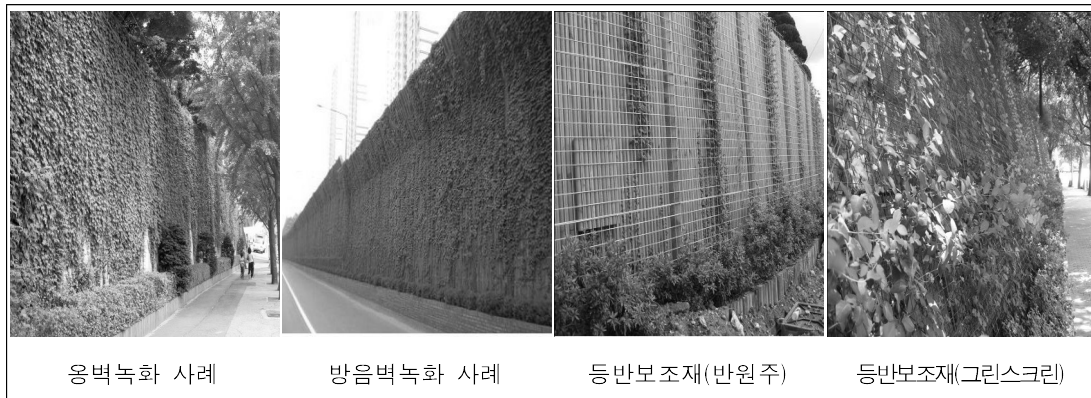
- 서울 중구 사례: 국가상징거리로 지정된 세종대로의 가로공간의 녹지량 확충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로녹지띠를 조성하여 가로 녹시율과 녹피율을 향상시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5> 세종대로 가로녹지띠 시공전후 사례

3) 가로변 구조물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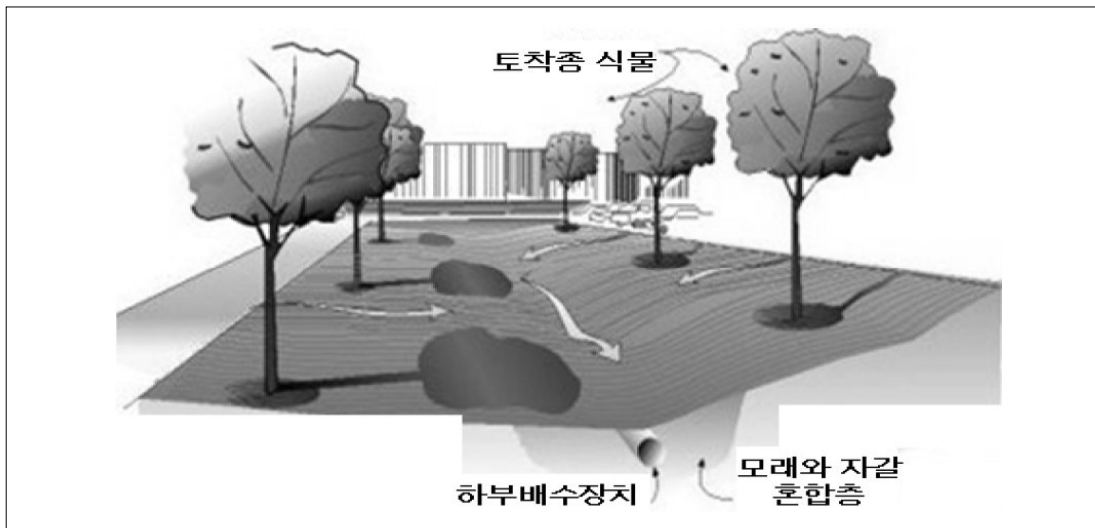
- 방음벽, 옹벽 녹화
 - 방음벽 및 옹벽의 기부에 피녹지를 조성하고 덩굴성 식물 식재
 - 상황에 따라 벽면의 상부에 식재용기를 설치하고 하수형 식물을 늘어뜨리는 방법 병행
 - 식재수종 : 담쟁이덩굴, 능소화, 인동덩굴, 송악 등
- 교각 하부 녹화
 - 교각, 고가도로의 대형 기둥 기부에 피녹지를 조성하고 기둥 둘레로 메쉬망을 설치하여 덩굴성 식물 식재
 - 경관적으로 중요한 곳은 부분적으로 입면에 식재공간을 설치하고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수법인 벽면장치형 녹화 수행
 - 식재수종 : 능소화, 인동덩굴, 등나무 등
- 가로 구조물 녹화
 -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등 가로구조물 기부에 피녹지를 조성하고 측면에 목재 트래리스 등을 부착하여 덩굴성 식물 식재
 - 식재수종 : 줄사철(상록), 송악(상록), 담쟁이덩굴



<그림 6> 가로변 구조물 녹화유형

4) 식생수로

- 식생수로란 유출수의 흐름을 늦추고 침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잔디로 피복된 유압식 수로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세계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빗물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계속되는 불투수 포장면적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빗물의 자연 침투 및 증발·저류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생태계 기반 역할을 하는 토양이 훼손됨으로써 물 순환 구조가 파괴되어 도시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상지역 및 인근 지역에 홍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 현재 고속도로, 일반도로, 인도, 주차지역 등 불투수지표면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를 직접 배수체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식생지역으로 유출수가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 대규모의 포장된 표면으로부터 유출 방향을 분산시킨다.



<그림 7> 식생수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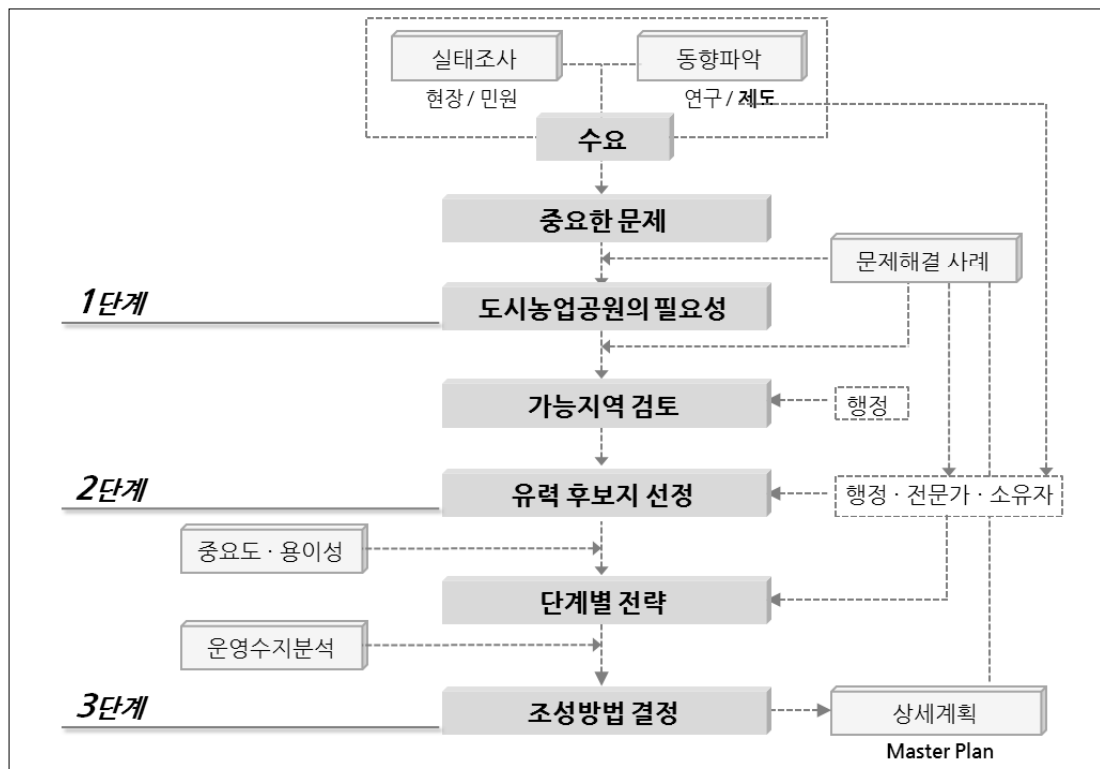


<그림 8> 주차장 전경과 개방수로

2.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농업공원

● 도시농업의 개념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 또는 도시 인근의 토양과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UNDP, 1996). 국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최근 도시농업이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대두되어 도심지의 오염물질 저감방안의 하나로 학교농장, 주말농장, 생태텃밭 등의 형태로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림 9> 도시농업공원의 조성모형

● 목적

- 자연교육,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여가선용, 건강유지, 식량제공, 공한지 재이용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 내용

- 단순한 경관, 휴식, 운동 중심 공간의 기존 공원에서 탈바꿈한 도시농업공원은 생산과 즐거운 자발적 노동이 함께하고, 수확의 기쁨을 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또 하나의 생활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 자연스럽게 지역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치된 공간의 정비와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농작물 재배, 도시열섬현상 완화, 도시홍수 예방, 에너지 비용절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응
- 사회적 효과: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시민의 환경교육의 장 제공, 사회공동체 회복, 커뮤니티 공간기능 제공, 도시 구성원의 욕구 충족, 아름답고 친근한 생산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 제공,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활용, 민간의 역할
- 환경적 효과: 농업작물재배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흡수, 도시생태계의 복원, 대기 미기후 조절효

과(습도),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 순화, 생물의 서식처 역할

● 사례

1) 서울시

- 서울시는 2012년 6월, 서울의 첫 도시농업공원인 용산구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서울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아그로시티(Agro-City)'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는 노들섬 터 6만818㎡ 중 테니스장으로 운용해온 2만여㎡를 도시 농업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1년 단위로 분양해 농사를 짓고 있다. 분양 후 남은 공간에는 어린이 농업 전시장 등 여러 테마 농장을 만들고 숲 지대인 한강대교 동쪽 터는 산책코스로 조성하였다.



<그림 10> 한강 노들섬 농업공원 위치 및 공간구성



<그림 11> 한강 노들섬 농업공원 사진

2)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 도시농업공원

- 부평구가 공장 부지였던 십정동 일대 346번지 3,379㎡(1,020평)를 매입하여 조성한 도시농업 공원으로써 '참여와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도심 속 친환경 농업공간이다. "농사를 짓고 싶어

도 땅이 없거나, 또 시도를 해도 친환경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사법을 알릴 예정”이라며 “텃밭체험 교육에서는 텃밭 모종심기 및 씨뿌리기, 장애인 텃밭 체험 등 농사를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시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 기존 공원의 일률적인 조경이나 휴식처 중심에서 농업공원은 이용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꿔가는 개념으로 도시농업공원이 사라지는 경작지와 그에 따라 농사일하는 사람과 농법도 더 붙어 잃어가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의 하나의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생산과 나눔의 텃밭은 벼, 고추, 감자 등 식량작물을 재배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무료로 나눠주고, 체험과 참여의 텃밭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아동들이 체험·견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장애인이 직접작물을 가꿀 수 있는 장애인 체험형 상자텃밭은 휠체어를 타고 활동하는 이들을 고려해 0.6m 높이에 1.2m 폭으로 조성되어 있다.
- 조성한 도시농업공원은 공단인접지역. 따라서 주거지역 내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존재 자체는 단순한 먹을거리 재배 외에 녹색공간과 지역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자리란 의미도 크다.



<그림 12>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 도시농업공원 사례

3. 지역의 활성화와 대안문화 제시를 위한 그린마켓 지원

- 착한 먹을 거리, 착한 소비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착한 장터 ‘그린 마켓’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그린 마켓의 개념을 한단계 진일보하여 예술, 문화, 지역성을 접목하여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의 테마발굴과 공공디자인 접목을 통한 지역장터공간을 조성한다.



<그림 13> 서울 13대 명물장터



<그림 14> ① 연남동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 장터 / 일상예술창작센터 제공 ② 명동 명랑시장 / 일상예술창작센터 ③ 공덕동 놀장

● 목적

-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래식 장터를 공공예술·문화, 공공디자인이 어우러진 장터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명소로 재창조한다.
-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강조한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 쾌적한 장터공간의 조성하고 지역의 아티스트 및 예술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대안문화'를 제시한다.
- 재활용, 로컬푸드 장터를 통해 친환경 문화예술장터를 조성한다.

● 내용

- 각각의 지역, 장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장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로컬푸드 및 재활용품의 장터에 관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한다.
- 쾌적한 생활문화환경조성과 휴식공간 제공한다.

● 기대효과

- 지역민의 커뮤니티 강화효과를 가져온다.
- 특색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함을 인한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친환경, 신문화의 도시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 지역예술인, NGO,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예: 서울시민장터협의회¹²⁾)

● 사례

1)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장터: 마르쉐

- 마르쉐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도시형 장터다. 엄밀하게는 '마르쉐@혜화'이다. 마르쉐는 프랑스어로 시장이라는 뜻으로 혜화동에서 열리는 시장을 말한다.
- 장이 열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일대는 북새통을 이룬다. 오전 11시~오후 4시, 다섯 시간 동안 서는 장을 찾는 사람이 통상 3000명을 웃돈다. 대학로에서 마르쉐가 시작된 것은 2012년 10월로 짧은 시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 마르쉐는 크게 △농부팀 △요리팀 △수공예팀 3부문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 도시에서의 슬로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만큼 마르쉐에 입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문의도 줄을 잇는다.



<그림 15> 마르쉐 전경

12) '서울시민장터협의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가량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장터를 열고 있는 일상예술창작센터, 찜지농부, 방물단, 마을공동체 '품애' 등 15곳의 민간단체가 모인 것이다.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활성화'와 '대안문화 제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場)'을 열면서, 지역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미다. 민간단체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끼리 파트너를 맺으면서 장터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2)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

(1) 재활용장터

- 시민장터 : 일반시민과 어린이들이 만들어가는 중고장터
- 보부상 : 건강한 일자리를 위한 특정품목의 중고장터

(2) 사회적경제장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 18개팀의 친환경 제품 판매

(3) 자활장터

- 전통공예 및 되살림제품, 친환경 먹거리 등 24개 자활기업상품 전시·판매

(4) 서울품물시장

- 구제의류, 잡화, 골동품 등

(5) 농부의 시장

- 지자체 보증 농·수·특산물 및 도시농부 생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도시농업과 연계한 체험공간 및 문화 행사 개최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및 장터 물품구색 다양화를 위해 전통시장 부스 운영



<그림 16>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 전경

memo

